



파렛트 업계 발전 모색

국제화에 부응

박은규/(사)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이리나라의 파렛트 시장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세하다. 이러한 파렛트 시장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국파렛트협회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거론하였다. 이에 한국파렛트협회 박은규 전무이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박은규 한국파렛트협회 전무는 올해의 주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협회 명칭을 '한국파렛트협회'에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로 변경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회원사들로부터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건교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라서 명칭변경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최근 협회에서 건교부에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은규 전무는 "컨테이너는 파렛트화와 컨테이너화의 핵심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보급 촉진, 연구 등 활동이 거의 없고 민간전문기구



가 전문한 상태"라며 "명칭변경 승인이 나면 컨테이너시스템의 보급, 제작, 표준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파렛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파렛트관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파렛트협회가 주관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협회에서 시행하는 6개월 간의 파렛트전문가과정을 수료하면 협회에서 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파렛트 업체에 입사하면 협회에서는 그 회사의 품질보증마크를 인증해 주는데 상당히 권위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박은규 전무는 "우리나라 여건상 이른감이 있지만, 파렛트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렛트관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T-11형 표준 파렛트에 의한 일관파렛트화 활성화도 협회 주요사업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를 위해 파렛트 상담실을 강화하고 파

렛트 시장의 정보화 추진, 표준파렛트 생산자금 지원체계 구축, 일관파렛트화 추진사례집 보급, 물류표준화 실태 파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렛트의 품질기준제정사업을 추진하여 파렛트의 품질향상을 꾀하고, PL법과 관련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법' 보급도 꾸준히 추진한다. 국제교류도 활성화하여 APP대회, APC파렛트세미나, 인터팍 등에 연수단을 파견키로 했다.

박은규 전무는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미국(NWPCA)과 캐나다(CWPCA)파렛트협회에 가입하고 EPAL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EURO파렛트 제작 라이선스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월에는 약 3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조사 보고서'를냄으로써 우리나라 파렛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1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렛트의 생산량은 연간 약 760만매, 파렛트 추정생산량은 약 1,050만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규 전무는 우리나라 파렛트 당면과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파렛트 시장규모는 일회용을 포함한 약 1천만매, 금액으로는 3천억원 규모로 생산업체는 약 200개사에 1사당 평균 15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종업원 수가 10~20명 사이로 영

세한 소기업 구조이다.

이러한 생산기업의 영세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없고 생산실태도 단순가공의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단순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파렛트 생산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업계발전에도 저해된다는 견해다. 또 하나는 시장의 폐쇄성을 들었다. 파렛트 시장이 전근대적인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존 거래처와의 폐쇄된 발주, 납품형식으로 거래돼 종합적인 마케팅이 어려운데다, 발주에서 구매까지의 수요 예측도 어렵다는 것이다. 생산기업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업계에 반해 사용업계는 파렛트시스템의 올바른 연구와 이해부족을 들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구매관습의 폐쇄성도 개선해야 할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전무는 향후 파렛트업계의 전망에 대해 “국제파렛트 표준화는 지금까지의 초보적인 탐색과 시도를 거쳐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는 3가지 규격의 파렛트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즉 유럽의 1,200mm×800mm, 북미의 1,200mm×1,000mm,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00mm×1,100mm의 3규격으로 표준화 된다는 것이다.

박전무는 끝으로 “국가표준 파렛트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선진화를 앞당기고 물류의 효율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

권해진 기자